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5)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 금융위원회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지지선언 및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13개 금융유관기관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및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TCFD 권고안은 아래 4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① 지배구조 :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와 관리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
- ② 전략 : 장/중/단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경영·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 ③ 리스크관리 : 기후리스크 식별·평가·관리절차 및 리스크관리체계 통합 방법
- ④ 지표 및 목표치 : 기후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관리지표, 목표치와 성과

또한 금융위원회는 8개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을 통해 녹색산업 전반에 정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지지선언과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

### 환경부 -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5월 24일 전국의 모든 지자체(17개 광역, 226개 기초)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지역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한편,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저탄소·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도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별첨2][보도자료] 환경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이 지배구조에 치우쳐 있던 ESG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책임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현재 ESG 평가체계는 지배구조 중심이었다면 향후 환경·사회 부문 가중치를 높인 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내 주식 투자 시 ESG 평가 요인을 반영해왔는데, 책임투자 적용 자산을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혀, 책임투자 적용 대상 자산군이 내년까지 전체 기금 자산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 ESG평가서 E·S 강화 (매일경제, 5/21)

2. 사모펀드(PEF)들이 ESG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IMM PE는 이달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 가입하였고, MBK파트너스는 2012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UN PRI에 서명한 이후 내부 기준을 만들어 ESG 투자를 집행해 왔습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운용사들도 투자활동 전 과정에 ESG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출자자(LP)들이 ESG를 중시하고 있어 이를 도외시한 운용사는 자금 모집이 어렵고 투자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도 ESG는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G 외치는 PEF들... "기관 투자 유치하려면 필수" (인베스트조선, 5/21)

3.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ESG와 금융시장: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ESG 경영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거나 ESG 경영을 규제 준수 의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온실가스 절감, 52시간 근무제 준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등 규제 대응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평판위험 관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ESG 위원회나 ESG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예를 들어 ESG 성과 연계 채권 또는 은행 대출, ESG 점수에 따른 투자비중 조정 전략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내 기업 ESG 정확한 개념 이해 부족... 금융의 역할 중요" (머니S, 5/26)

4. HMM, 롯데정밀화학, 롯데글로벌로지스, 포스코,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 등 총 6곳 기업·기관은 25일 '친환경 선박·해운 시장 선도를 위한 그린 암모니아 해상운송 및 벙커링 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암모니아는 촉매 등을 통해 수소를 간단히 분리할 수 있고 기체 혹은 액체 상태 수소 대비 운송 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이 있어,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서 그린 수소 캐리어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50년 선박 연료 수요 중 암모니아가 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암모니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6개사 모인 암모니아 '드림팀'...연합군으로 수소 사업 공략 (매일경제, 5/25)

5. 조용범 국민은행 ESG기획부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ESG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ESG 경영의 수준이 대출 심사 통과 여부와 금리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석탄 금융'을 현재까지는 대기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G경영 입문한 中企, S부터 먼저 챙겨라" (한국경제, 5/24)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12일 미국의 ESG 도입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방 기관과 주정부에서도 ESG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했거나 제정할 계획에 있는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미국기업의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백제 및 청소관련 분야에서 미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lorox는 1)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및 섬유 포장재는 50%까지 감소하고 2025년까지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 포장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태양 프로젝트로부터 12년간 매년 70MW의 재생에너지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3) 재활용 또는 인증된 천연 섬유만 포장에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설계·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인 Intel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에서 전쟁, 범죄, 인권유린 등을 동원하여 채굴되는 천연자원인 '분쟁광물'의 판매로 인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범법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Netflix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유색인종,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으로 구성된 제작자 및 사내 인력 보유율을 개선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연간 2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KOTRA는 ESG가 미국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바 향후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체계를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로 보는 미국의 ESG 도입현황 (KOTRA 해외시장뉴스, 5/12)

## 대륙아주 ESG 동향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륙아주 김병철 고문의 ESG 관련 기고를 소개드립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가지 기둥의 균형 [ESG, 경제의 뉴노멀] (4) (세계일보, 5/31)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



**박경석** 변호사

ESG, 기업자문, 에너지/인프라

E parkks@draju.com

T 02-3016-5388